



중국의 국내적격기관 투자가 제도 활성화 현황 및 전망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통화의 절상속도 조절 및 과도한 시중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적격기관투자가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단기적인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경색 해소 및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 등 운용여건 변화에 따라 중국민들의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요구됨.

- 지난 4월 7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자국민들이 미국 주식 및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부여받은 23개 은행들(중국 19+외국 4개)의 펀드계정을 통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짐.
 - 중국은 이미 자국민들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등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적격국내기관투자가 제도의 활성화로 자국민들의 외화수요를 진작시켜 위안화의 절상속도를 조절함은 물론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자 함.
 - 최근 수년간 외국인투자 증가와 무역흑자 확대로 자본유입이 늘어나 과도한 시중유동성 공급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중국경제의 안정성장 기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금 및 에너지, 원자재 급등 등 물가상승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과도한 달러가치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차손 우려가 증대될 경우 중국의 미국 국채 투자가 축소될 소지가 있음.
 -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중국은 9,22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주식 투자액은 29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국채임.
 - 지난 4월 10월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일의 7.0017위안에서 6.9920위안으로 하락하여 사상 처음 7위안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이로써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미 달러화에 대해 7% 절상된 이후 올해 들어서도 4.5% 추가 절상됨.
-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가 제도는 외환당국이 은행별로 할당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가된 할당총액은 약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 등으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1억 달러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중국 民生은행은 주식시장 급락 여파 등으로 인해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해외주식펀드를 폐쇄하기도 함.
- 또한 현재까지 중국투자공사(CIC)와 중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블랙스톤과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영국 버클레이즈은행 등에 대한 지분 출자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해외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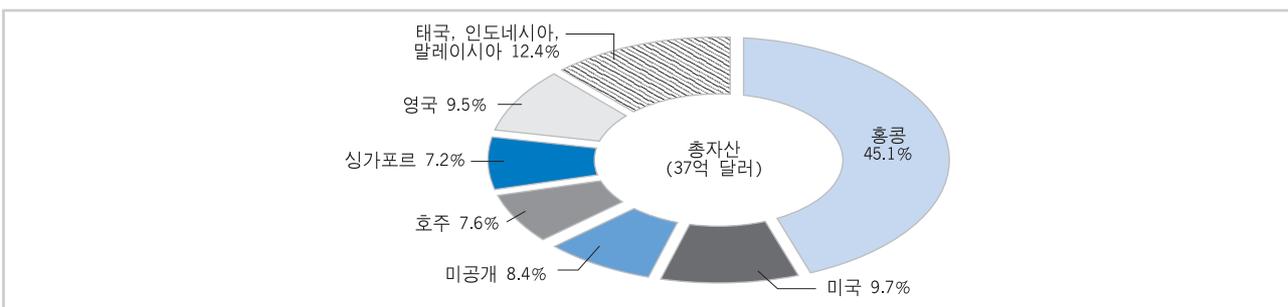
■ 이번 중국과 미국 간의 투자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중국인들의 미국 증권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투자협정이 체결된 지역 대상의 해외주식펀드도 공모미달이거나 대다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경기침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내예금으로 보유하는 편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
- 올해 들어 S&P500지수가 6.7% 하락한 데 비해 중국 상하이주가지수는 30% 이상 급락하는 등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국내 주가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음.

■ 지난 2006년 중반까지 강력한 자본통제가 이어지면서 중국인이 미 달러화 등 외화를 보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나, 현재 중국 개인은 위안화를 연간 5만 달러까지 외화로 태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

- 지난해 말 기준으로 JP Morgan과 상하이국제투자신탁공사가 함께 운용하는 China International Asia-Pacific Advantage Fund(총자산 37억 달러)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홍콩시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분포가 다양화되면서 미국 투자비중도 주식예탁증서 형태 등으로 약 3억 5,700만 달러(9.7%)에 달함.

〈그림〉 China International Asia-Pacific Advantage Fund의 지역별 투자비중



■ 단기적인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제도가 적격국외기관투자자(QFII, 현재 할당총액 300억 달러) 제도와 더불어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및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라는 양대 투자채널로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적극적인 진출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2.4조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개인들은 향후 글로벌 신용경색 해소, 정부의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 및 운용자산 다양화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 등을 목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KIF**